

배포일 2021년 7월 23일 보도일시 2021년 7월 23일 (즉시)

담당자 김재진 사무국장, 김지연 부국장

TEL 02-6412-4778~9 FAX 02-6412-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 구성

- 글로벌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 글로벌 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 등과 함께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트래블 룰 이행안 도출 목표
 - FATF 가이드라인 준수 및 객관적, 중립적 기술표준 수립을 위해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인 모든 회원사의 참여와 협력 논의해 나갈 것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7월 23일 (금),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훈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T는 △ 글로벌 표준에 맞는 객관적·중립적 기술표준의 수립, △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계 구축, △ FATF 가이드라인 개정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회 소회원사의 트래블 룰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글로벌 이행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는 전중훈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제 워킹그룹은 IDAXA의 Anson Zeall 회장, GBBC의 Sandra Ro 회장, KPC4IR의 김소영 센터장이 각 부단장으로 참여하고, 국내 워킹그룹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하 감사(前 전국은행연합회 감사·FIU 제도운영과 과장)가 각 부단장으로 참여한다.
-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규정에 대한 국제표준 보고서(Second 12-Month Review of The Revised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 21. 7. 5.)’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아

직 트래블 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바, 민간 부문(private sector)과의 긴밀한 협력은 글로벌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표준안 마련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최적화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전중환 단장은 “지난 6월 제4차 FATF 총회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FATF의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했지만 트래블 룰을 정확하게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을 정도로 글로벌 표준 기술 솔루션 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고, FATF의 권고 사항인 트래블 룰 준수에 대해 더욱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중심의 통합된 트래블 룰 기술 솔루션 모델을 개발·구현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국의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 오갑수 회장은 “협회 모든 회원사들을 위한 통합된 트래블 룰 솔루션의 구축은 물론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TFT의 목표” 이며, “FATF 차원의 국제적인 논의와 별도로 트래블 룰 국제 표준화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글로벌 TFT를 출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TFT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1년 7월 23일 보도일시 2021년 7월 23일 (즉시)

담당자 김재진 사무국장, 김지연 부국장

TEL 02-6412-4778~9 FAX 02-6412-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

□ 참여 단체



□ **전중환 단장 약력** :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글로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ATF,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각 관할국 당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프로보노(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 現)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 現)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
- 現)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
- 現) 글로벌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 부회장
- 前)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인 휴렛팩커드 기업서비스그룹 (DXC Technology)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 금지 국제기구로, 미·중·일 등 37개국(한국은 '09.10.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총 39개 국가 및 단체로 구성되었다.

□ **트래블 룰(Travel Rule)** : FATF는 2019년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고기준을 개정, VASP(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발송자와 수취자 정보(이름, ID번호, 지갑주소 등)를 공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규칙은 고객확인제도(CDD)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밝히고 추적하는 핵심 규제장치이다. 이것은 은행 전신 송금 및 SWIFT 전자 자금 이체를 실행할 때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했던 소위 금융권의 트래블 룰과 유사하다.

□ **글로벌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 : 세계 주요국의 대표성 있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글로벌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표준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전중환 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IDAXA의 부회장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IDAXA는 AML과 KYC 준수 및 트래블 룰에 대한 FATF의 새 권고안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공동의 접근법을 찾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표준인 IVMS 101의 발간에 디지털상공회의소(CDC), 글로벌 디지털 금융(GDF)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IVMS101은 FATF의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여러 방안의 논의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또한 FATF(VACG)를 포함한 일본금융청(JFSA), 싱가포르 금융청(MAS) 등 각국의 규제 당국과도 소통해오고 있다.

□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 : 세계경제포럼(WEF)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KAIST와 실행 협약(Agreement)을 체결해 파트너십을 이룬 연구센터로 WEF와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의 규제 재설계에 관한 아젠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경제의 기술, 제도, 시장이 부딪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WEF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EC Joint Research Centre,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과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혁신 및 기술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 : 인터넷의 등장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계 유수의 산업협회로서, 2016년 여름 영국 네커 섬의 블록체인 서밋에서 구상하고 201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창립하였다. GBBC는 70개국의 산업계, 학계, 정계 리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도모하고자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KAIST, WEF, 어니스트앤영(EY), 액센츄어 등의 기관과 함께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 지도 보고서(Global Standards Mapping Initiative)를 편찬하고 있다.

□ 가상자산관련 FATF의 트래블 룰 글로벌 이행 현황

FATF가 2021년 7월 5일 발표한 가상 자산(VA)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개정된 권고기준의 구현에 대한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트래블 룰을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 부문(private sector)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트래블 룰 요건

- a) VASP가 CDD(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정기(일회성) 거래기준은 1,000 USD/EUR 이상
- b) 국가는 발송 VASP가 가상자산 이전에 필요한 정확한 발송자 정보 및 필수 수취자 정보를 획득 및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수취 VASP 또는 금융기관(있는 경우)에 위 정보를 즉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하고 당국의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함.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금융기관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됨.

□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 룰 요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3.23.)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 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발송 VASP)는

- i)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수취 VASP)에게 가상자산 발송고객과 수취고객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ii) 발송고객과 수취고객의 가상자산주소,
- iii)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취 VASP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함.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 정

보는 가상자산을 발송할 때에 수취 VASP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 등 고객의 식별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상자산 이전 규정 강화 법안 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0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가상자산의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자산의 탐지와 조사를 위해 송신자와 수신자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이전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가상자산 이전의 규정 강화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이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FATF의 권고 사항인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